

고향 돗토리

Nostalgic Tottori

다다르고서야 알게 되는
디디고서야 느껴지는
돗토리
나의 고향

돗토리현 돗토리시

관광정보 문의

일반사단법인 돗토리시 관광컨벤션협회
돗토리시 경제관광부 관광컨벤션추진과

tel.0857-26-0756 <http://www.torikan.jp/>
tel.0857-20-3227 <http://www.city.tottori.lg.jp>



야마다야 야마다 숲의 커다란 후박나무 (돗토리시 게타카정)



모치가세 나가사비나 행사 (돗토리시 모치가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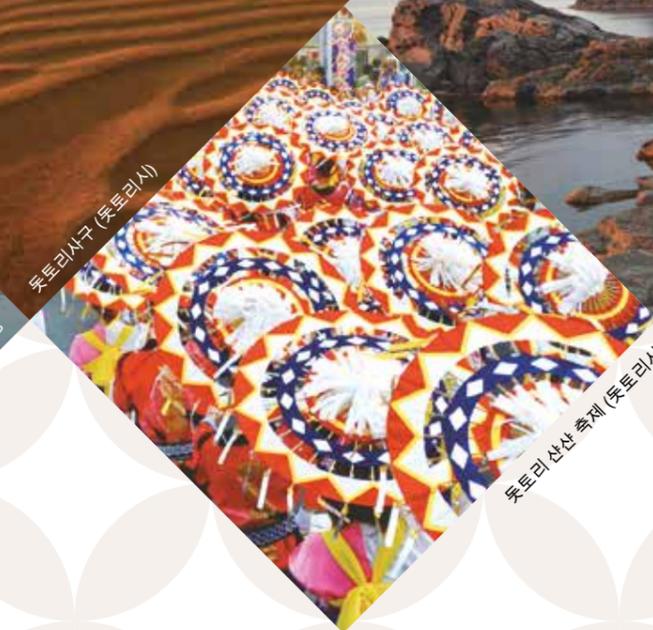
업교밭 (돗토리시 후쿠베정)



나쓰도마리해안 (돗토리시 게타카정)



고야마이케 연못 석양



돗토리사구 (돗토리시)

돗토리 산산 축제 (돗토리시)



시카노 성터 (돗토리시 시카노정)

길을 걷고 있으면
웬지 모를 그리움이 밀려온다.
사계절을 몸으로 느끼며...

돗토리

마음의 고향

따뜻하게 맞아주는



봄

Spring

봄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린다.
슬쩍 비친 따스한 색채는
마음을 설레게 한다.



사구



사렘



풍문

돗토리 사구

일본에서 가장 큰 모래 언덕 Tottori Sand Dune
산인해안 지질공원 돗토리사구지역에 위치하며,
남북 2.4km 동서 16km에 걸쳐 펼쳐지는
일본최대의 사구.
웁푼 파인 모양이 절구와 닮았다고 해서
스리바치라고 불리는 곳은 최대 40m정도의
높낮이가 있다.
'모래의 잔물결'이라고도 불리는 '풍문'과 모래가
사면을 흘러내리는 '사렘' 등 바람과 기후에 따라
아름답게 변하는 사구의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말의 등

돗토리 사구에는 3개의 사구열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높고
눈에 띄는 것이 제 2 사구열, 일명
"말의 등"이다. 높이 50m가 되는
'말의 등' 정상에 올라가면
아름답게 만곡한 해안선과
산줄기 등, 360도 훌륭한 조망을
즐길 수 있다.



벚꽃의 터널이 아름다운
후쿠로강의
벚꽃독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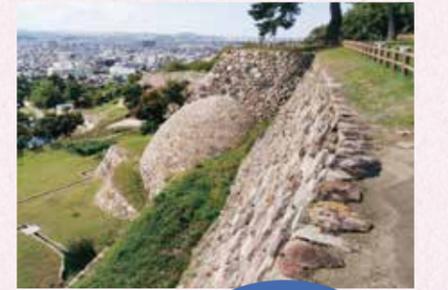
와카사다리에서 유도코로다리까지 이어지는 약
2km의 벚꽃독길은 인기 많은 벚꽃구경 장소이다.
벚꽃놀이 기간 중에는 제등이 켜져 환상적인 밤의
벚꽃을 볼 수 있다.

일본 100대 성
돗토리 성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병량공격으로 유명한 돗토리성은
지금도 천수각과 니노마루의 흔적이 남아있고 일본에서
유일하게 동그랗게 쌓인 돌담을 가지고 있다. 주변은
규소공원으로 정비되어 있어 봄에는 벚꽃 명소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로맨틱한 양관
진푸카쿠

1907년, 당시의 황태자 (후의 다이쇼 천황)의
돗토리 행계에 맞춰 건설되어 숙소로
이용되었다. 프렌치 르네상스 양식을 기조로
하는 백악의 목조기와지붕 건물이고
국가지정중요문화재이다.



연분홍 빛으로 물든 마을에

만발한 벚꽃이
옛정취가 묻어나는
거리를 아름답게
수놓는다.
보이는 것 모두
파스하고
만나는 사람 모두
포근하다.



음력 3월 3일의 전통행사
모치가세 나가시비나
무병 식재를 빌며 짚으로 만든 배에
남녀 한 쌍의 종이인형을 태워 강에
흘려보낸다.

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매력적인 마을
시카노 성터 공원
센고쿠 시대, 가메이 고레노리가
거주한 성이 있었던 곳이며
벚꽃의 명소.



돗토리현 무형민속문화재
기린사자춤

돗토리 첫대 번주 이케다 미쓰나카가
진흥시킨 것으로 전해지는 전통춤.



토끼가 이어준 순백의 사랑
하쿠토 해안

신화 "이나바의 흰 토끼"의 무대
하쿠토 신사에는 토끼가 몸을 씻었다고
전해지는 미타라시노이케 연못이 있다.
흰 토끼가 오쿠니누시노미코토와 절세의
미인인 야카미히메 공주의 혼인을 중재한
점에서 인연을 맺어주는 힘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여름

Summer

파랗게 빛나는 바다와 하늘
같은 파랑인데도 다르게 느껴지는 파랑.
새로운 색깔을 발견하는 재미,
돗토리의 여름

사구 체험

하늘 · 바다 · 땅에서 즐기는 activity sports

관광용 낙타를 타고 우선 사구를 마음껏 유람.
사구에서는 나무, 바위와 같은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초보자도 체험 가능한 패러글라이딩 등 스카이
스포츠도 인기가 많다.
사구의 모래와 사면을 이용한, 스노보드를 닮은
샌드보드도 초보자부터 고급자까지 즐길 수 있다.



패러글라이딩

사구는 모래땅이라 안전해
초보자도 도전하기 쉬운
점이 특징. 바다 바람을 타고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기분은 상쾌하다.



샌드보드



낙타타기 체험



새로 확대된 산인해안 지질공원

나가오 곶·나쓰도마리 해안 (하마무라 ~ 아오야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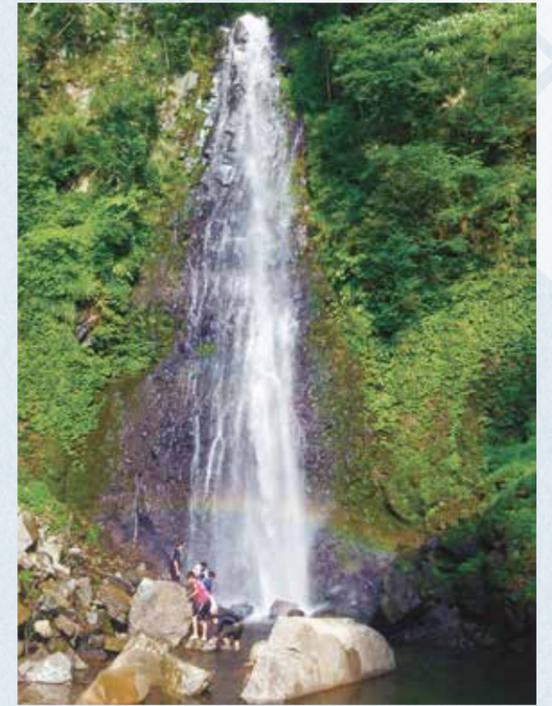
해안지역에는 화산활동으로 흘러나온 응암에 의해 형성된 암석해안
(나가오바나 등)과 밟으면 소리가 나는 모래사장(이데가하마 해안 등)
이 펼쳐진다.내륙부에는 돗토리지진을 일으킨 시카노단층이 보이며,
온천(시카노온천, 하마무라온천 등)과 많은 폭포들이 존재한다.



일본의 폭포 100선

아메다키 폭포

1990년에 일본의 폭포 100선에 꼽힌
돗토리현 최대의 폭포, 아메다키는
산인해안 지질공원 오기노센 지역에
속한다. 가을에는 단풍을, 초여름에는
신록을 만끽할 수 있다.



즐기는 지질공원

고야마이케 연못 유람선

고야마이케 연못의 전설과
옛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긋하게
유람.



지질공원 최고의 절경

우라도메 해안 (이와마정)

동문, 동굴, 백사 해안 등 다양한
지형을 관찰할 수 있다.

요시오카 온천에 날아다니는 빛

반딧불 축제 (6월)

반딧불을 감상하면서 콘서트,
포장마차 음식 등도 즐길 수 있다.



방울소리가 여름 하늘에 울려 퍼진다

돗토리 산산축제

'온천수가 평평(일본어:산산) 솟아나온다',
'방울소리가 짹짹(일본어:산산) 울린다'는
뜻에서 지어진 산산축제는 돗토리를 대표하는
여름 축제로 자리잡고 있다.매년 4000명을 넘는
주민 참가자들이 방울이 달린 우산을 들고 함께
춤추는 모습은 압권이다.

자연미에 반하여

자연미에 매료되며
해안선의 지형과 모래사장,
잔잔한 연못,
그리고 우렁찬 폭포
아주 먼 옛날에 창조된 그 조형미에
보는 사람들은 압도당한다.
때로는 부드럽고,
때로는 고센 그런
『산인해안 지질공원』의 여행.



게타카정 하마무라에서 열리는

가이가라부시 축제 (8월)

벧노래 "가이가라 부시"와
후리질 체험 등으로 바다를 만끽.

산산축제의 피날레

시민 납량 불꽃축제 (8월)

돗토리의 여름을 대표하는 축제.
각종 다양한 불꽃으로
밤하늘이 물든다.



오징어류의 왕

시로이카(창꼴뚜기)

초여름부터 늦가을에 걸쳐 깜깜한 밤 바다에
빛나는 '이사리비(오징어잡이 불)'.대낚기
어업으로 잡히는 창꼴뚜기를 돗토리에서는
시로이카(흰 오징어)라고 부른다. 단 맛이
진하며 인기있는 돗토리의 여름을 대표하는
특산물이다.

가을

Autumn

추위를 느끼기 시작할 무렵
페인트 통이 뒤집혀진 것처럼
선명하게 물든 경치
마을도 좋지만 산도 좋다

염교밭

10월 하순부터 11월 상순에는
염교꽃이 만발하여 밭 전체가
카펫처럼 마냥 자홍 빛깔로 물든다.

사쿠 락교

돗토리의 브랜드 음식 **Sakyu Rakkyo**

돗토리사구에 인접하는 돗토리시 후쿠베정에서 재배되는 "돗토리 락교(염교)"는 돗토리를 대표하는 브랜드 농산물이다. 땅 표면온도가 여름에는 60도, 겨울에는 영하가 되는 과혹한 조건하에서 재배되는 락교는 5월 하순부터 6월 하순에 걸쳐 수확된다. 갓 수확한 생 락교는 바로 전국에서 발매되고, 락교 초절임은 1년을 통해 발매되고 있다.



생 락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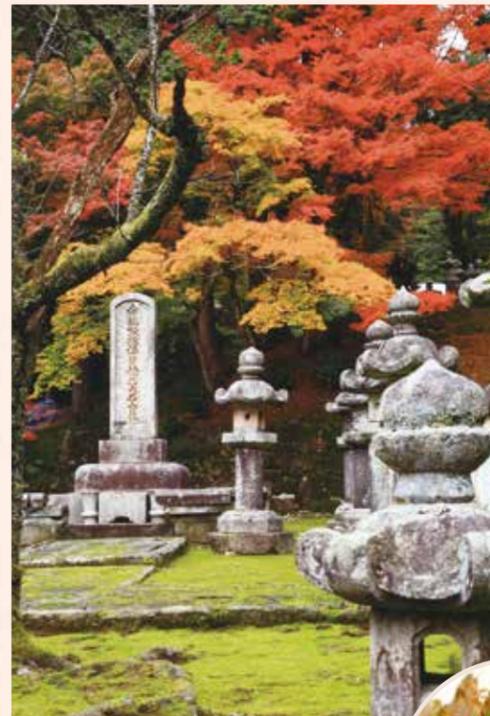
락교 초절임



돗토리를 대표하는 도자기
인슈 나카이 가마
우시노야키에서 이어받은
청녹색·검은색·하얀색의 유약을
써서 엄격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산속에서 잠자는 역대 번주들
이케다가문 묘지

첫대 번주 미쓰나카 이후의 역대 번주 11대를 비롯하여
번주부인, 분가인 "동관" "서관" 당주들도 매장되어 있다.
현재 총 78 개의 묘비가 들어서 있고, 가신들에 의해
주위에 세워진 동통은 260 개를 넘는다.



인간국보가 만드는 최고걸작
야나세 가마
등그스름하고 부드러운
표면에 비치는 음영이
아름다운 흰 향아리.

풍요로운 음식과 정서 풍기는 문화

가을 돗토리에서 만날 수
있는 향토의 맛과 전통
이곳 아늑하고 선 볼 수 없는 음식,
도자기, 축제 등
와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있다.
산책하면서 자기만의
돗토리를 발견.



돗토리의 가을을 대표하는 맛
20세기 배
신맛과 단맛의 절묘한 조화,
상큼함이 인기.



두부문화의 끝판왕
두부 어묵
두부와 흰살 생선을 으갠
어묵으로 만들어진 부드러운
식감.

회 또는 소금구이가 일품
모사 세우
탄력있는 식감과 단 맛은
분홍새우보다 더 진하다.



돗토리도쇼구의 축제
곤겐 축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모시는 신사로 알려지는
돗토리도쇼구
(오치다니 신사)
에서 열리는 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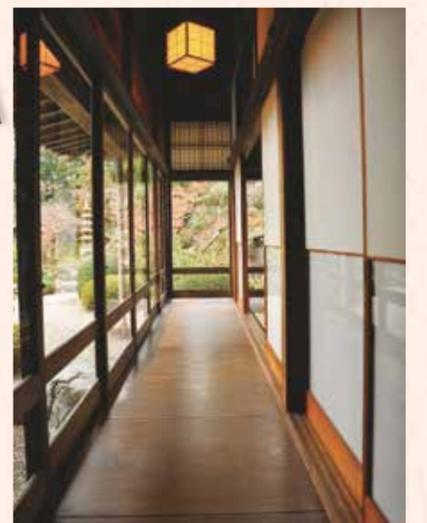
천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인슈 일본 전통종이
서예용 종이는 일본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에도시대 모습을 재현한
돗토리 32만석 성축제
화승총연무와 전통춤공연,
포장마차 등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즐길 수 있다.

돗토리 굴지의 명예 존장의 주택
유린소

돗토리시의 명예시민이며 정재계의
거물이라고도 불린 요네하라 쇼조가
만년에 사랑한 휴식장소이며 지금은
회식, 모임장소로 이용 가능하다.



돗토리 민예의 발상지
돗토리민예미술관
일본과 해외의 민예품을 약 5000개
전시하고 있고 민예활동가 요시다 쇼야가
장년에 걸쳐 수집한 민예품도 소개하고
있다.



겨울

'눈에 갇힌 돗토리의 겨울'
그런 이미지를 불식하는 아름다운
세계가 이곳에 펼쳐진다.



일루미네이션



조명으로 연출된 '말의 등'



아트 퍼포먼스



돗토리사구 일루루전

겨울의 돗토리사구는 **Tottori Sakyu Illusion**

30만개의 일루미네이션이 돗토리사구를 환상적으로 연출하고 모래조각 퍼포먼스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린다. 빛과 자연이 융합한 겨울의 사구는 소중한 사람과 소중한 시간을 나눌 수 있는 로맨틱한 곳이다.

하얀 사구

겨울이 되면 사구는 색다른 표정을 보인다. 눈이 모든 모래를 덮어 하얀 사구로 변신,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진다.



박력 넘치는 모래의 예술 모래미술관

매년 해외 각국에서 모래조각가들을 초대하여 세계최상급의 모래조각을 전시하고 있어 '모래로 세계여행'을 기본 컨셉으로 한 정밀하면서도 박력있는 모래조각을 볼 수 있다. 해마다 테마를 바꿔 제작하기 때문에 세계에 하나뿐인 모래조각을 한정된 기간만 볼 수 있다는 점도 모래예술의 매력 중 하나이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모래조각 만들기 교실이나 모래조각 제작을 통한 지역교류도 실시하고 있다.



국가의 중요무형민속문화재
사케노쓰 돈도축제 (1월)
밭가벗은 남자 아이들이 1년의 무병 식재와 풍어를 기원한다.

반짝이고 후끈한 고향

추위 덕분에 오히려 더 즐길 수 있는 여행도 있다.
따뜻한 온천과 식사의 '후끈함'과 사구를 둘러싸는 '반짝임'.
둘 다 겨울의 돗토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매력.
모르는 사이에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는 겨울.

본격적 소바(메밀국수) 만들기 체험
시카노 소바 도장
시카노에서 재배된 메밀가루를 100% 사용한 소바(메밀국수). 자신이 직접 만든 소바(메밀국수)는 각별하다.



겨울 바다의 맛
마쓰바 대게
(11월 상순 ~ 3월)
회, 삶음, 구이, 전골 등 다양하게 먹을 수 있다. '얇게' '어린대게'도 인기가.



돗토리의 부엌
시장
관광객은 물론 지역 사람들도 이용하는 '역전시장'과 '마린피아 가로'에는 돗토리의 신선한 식재가 준비하다.



맑은 겨울 하늘에서 빛나는 별
돗토리시 사지 아스트로파크
103cm 반사망원경, 천체투영관 등이 있는 국내유수의 공개 천문대.

후끈 온천천국 돗토리
온천

'돗토리 온천 베스트10' 중의 4 군데인 요시오카, 돗토리, 시카노, 하마무라운천이 돗토리시에 위치한다. 온천 마을은 소박하면서도 인정이 넘쳐 방문객의 마음을 치유해 준다.





관광 MAP



우오미다이 (게타카지)



시카노왕래 (시카노지)



하쿠토 신사



국도휴게소 "신화의마을 시로우사기, 와라베 어린이관



배따기 농원 (후쿠베지)



아오야 전통종이 공방 (아오야지)



킵잉 사지(사지정)



국도휴게소 "청류찾집 가와하라, (가와하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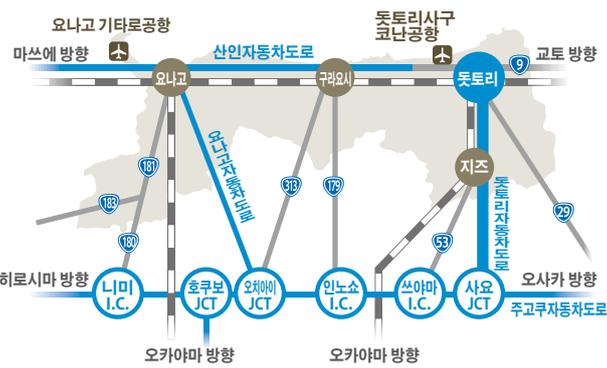
나가시비나관 (인형전시관) (모치가세정)



이나바 만요역사관 (고쿠후지)



우베 신사 (고쿠후지)



돗토리시로의 교통수단

자동차로 오사카 방면에서 주고쿠자동차도로·사요JCT ~ 돗토리자동차도로·돗토리 IC (약 60분)
 히로시마·오카야마 방면에서 주고쿠자동차도로·쓰야마 IC ~ 국도 53호 경유 (약 60분)

고속버스로 도요(야행) (약 10시간) 교토 (약 3시간 25분)
 오사카 (약 2시간 50분) 히메지 (약 2시간 4분)
 히로시마 (약 4시간 40분) 후쿠오카 (야행) (약 10시간 30분)

열차로 도요 방면에서 신칸센(히메지 환승) ~ 특급슈퍼하쿠토 (도요에서 약 5시간 10분)
 오사카 방면에서 특급슈퍼하쿠토(오사카에서 2시간 30분)
 시코쿠/규슈 방면에서 신칸센 또는 특급 (오카야마 환승) ~ 특급슈퍼이나바 (하카타에서 약 3시간 50분)

비행기로 도요 (하네다공항) ~ 돗토리사구코난공항 (약 1시간 10분)